

# 전남교육청, 교권침해 예방 활동 강화

### ‘찾아가는 교육활동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17일자로 개정·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과 관련,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3월 1일자로 인권보호팀을

신설해 각종 인권침해 관련 사안 조사 및 예방활동, 구제조치 등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심리치료 및 상담에 필요한 지원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지원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를 사전

에 막기 위한 방안으로 11월부터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권과 교육권이 함께 존중받는 협력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및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각 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15개교를 대상으로 연극놀이 등을 통한 심리상담, 뮤지컬 공연을 통한 공감대 형성, 원예·컬러·푸드 아트테라피, 한지공예, 샌드아트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치유 등을 운영한다.

학교 현장의 반응이 좋으면 점

차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 교원지위법과 관련해 학교 현장 지원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지 않는 학교,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교육활동 침해는 사후 지원보다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화순 능주고, 환경·문화·진로 탐색 기행

화순 능주고등학교는 지난 24, 25일의 1박 2일 일정으로 환경·문화·진로 탐색 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일정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진로 탐색을 위한 경기도 및 대전 일대를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활동 장소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경찰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통계청 등 진로 체험을 위한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였다.

경찰대에서는 바뀐 2020임시 요강의 설명을 듣고 캠퍼스 안내를 통해 국가관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신념의 경찰대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또, 사적 체험을 직접 해보는 활동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성균관대에서는 홍보 대사 알리미가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여 의과대학, 약학대학, 반도체, 화학관, 공학관 등을 돌며 설명을 해주었다.

카이스트에서는 선배(멘토)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카이스트 학부 건물을 탐방하였다.

특히,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 학생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수험생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법’, ‘카이스트 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한 방법’, ‘카이스트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분야’ 등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이번 탐색 기행에 참여했던 김0영(2학년)은 “수리과학연구소 체험을 하고 난 후 대중교통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모델을 수학적 기법으로 구현한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수학을 실제로 산업계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니 굉장히 흥미로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같이 동행했던 교감선생님도 “학생이 학교 현장을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이번 기행 역시 학생의 진로를 체험해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말하였다.

화순=박순철 기자

## 광주시교육청, ‘학부모 정책포럼’ 성료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9일 학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가는 자치실현(이하 학교가자)을 주제로 ‘2019 학부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다.

시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정책포럼’을 실시했다.

160명의 학부모와 교원들이 함께 참여해 ‘왜 학부모회를 고민하게 되었는가’란(박종영 전남초등학교 교사) 주제의 기초 발제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학부모회 활성화를 걸림돌은 저조한 학부모참여율, 학교의 무관심 및 지원 부족, 학부모회 전용 공간 부족, 학부모회 예산 집행 제약, 학부모들과 소통 및 정보 공유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해결방안으로는 학부모 회 임원

선출 시기를 12월로 조정, 학부모 회의의 다양한 연수 및 워크숍 진행, 학교 관리자의 학부모회 운영 역량 강화, 학교 교육 활동에 학부모 참여 확대, 예산사용의 유연성 등이 제안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받은 정책으로는 학부모회 공간의 마련과 권역별·학교급별 학부모회 네트워크 구성이 선정되었다.

장휘국 교육감은 “활기찬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학부모님들과 교원들의 모습에 밝은 광주교육의 미래가 보인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발굴된 정책들은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보성영재교육원 성과나눔축제 개최

보성교육지원청은 29일 보성영재교육원 성과나눔축제를 개최하였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걸음 올라서기’라는 주제로 학부모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술제를 비롯한 3영역(예술, 인문, 자연)의 성과를 한 자리에서 전시와 공연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축제로 치러졌다.

예술영재들은 2개 모둠으로 나눠 귀여운 소리 심청가를 선보였다. 소리의 고장답게 학생들의 목에서 쏟아지는 구슬픈 우리 가락은 바라보는 부모님의 합성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인문반 영재들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려 행사장 전면을 시화로 장식하였다. 자연반 영재들은 9개 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보

고서 전시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꼬마 과학자로서의 꿈이 영글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부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조사를 통해 유명 유튜브(대생가족, 뱃살요정)를 3명 초청하여 학생들과 소통하며 진로에 대한 다양한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유튜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요즘 학생들의 세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그야말로 연예인을 방불케 하는 인기를 실감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가을 밤의 정취와 자녀 진로지도에 관한 특강을 준비하여 음악과 감성을 갖춘 마라 인제 양성을 주제로 진로토크 콘서트(강사: 진상초등학교 교장 문홍선)를 병행하였다.

보성=안구일 기자

## 함평교육지원청, 국향대전 축제 기간 혁신교육 홍보



함평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국향대전 축제기간 중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함평혁신

교육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전국 단위 우수축제인 국향대전을 통하여 지자체와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이 키우기에 최적지인 함평 혁신교육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2020년 개관 예정인 유아 전용 놀이터인 ‘꿈

샘’과 함평교육역사관 구축, 중학교 3학년 전체학생 국외역사문화체험교육 지원, 자연생태 감성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등 우수 교육활동을 영상과 책자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관내 학교별 특성화 된 맞춤형 교육과정 배너를 설치하고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함평교육을 알리고 있다.

특히 함평골프코스와 전남보건고, 함평학다리고, 함평여중, 나산실용예술중은 학교 특성을 고려한 체험부스 운영 및 입학 전형 상담으로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고, 함평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는 각종 상담 및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영숙 교육장은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신념 아래 함평교육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축제와 함께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 홍보로 함평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작은 학교이기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두가 소중한 혁신함평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